



즉시 배포용: 2021년 1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참전용사의 식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헬로프레시와의 파트너십 확장 발표

이 협력관계는 2020년 동안 뉴욕시에서 식량 부족에 직면한 참전용사 및 군인 가족에게 이미 20만 회 이상의 식사를 제공

Cuomo 주지사의 성공적인 너리시 뉴욕 이니셔티브에 기초한 프로그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와 선두 식사 키트 회사인 헬로프레시(HelloFresh)가 현재 식량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뉴욕의 참전용사 및 군인 가족에게 무료 식사 키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파트너십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이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헬로프레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식량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뉴욕의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에게 200,000회 이상의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제 뉴욕과 헬로프레시는 2021년 2분기까지 이 협업을 확대하여 뉴욕의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이 앞으로 어려운 달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주당 배급에서 고품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아 퇴치 캠페인(The Campaign Against Hunger), 뉴욕시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및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Black Veterans for Social Justice)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은 군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중 하나는 식량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불확실한 시간 동안, 우리 나라에 봉사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이 영양가있는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프레시와의 성공적인 협력의 지속은 이러한 영웅들이 기아를 겪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퇴치 캠페인,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 그리고 뉴욕시 보훈부는 브루클린에 있는 기아 퇴치 캠페인 본부에 매주 모여 헬로프레시의 음식 배달을 수령하고, 음식을 정리 및 밀키트에 포장하고, 그리고 도시 전역의 음식 불안에 직면한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에게 음식을 배포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전 참전용사들이 좋은 직장과 좋은 집, 신선한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빛을 갉습니다. 저는 헬로프레시 같은

뉴욕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참전용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뉴욕주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참전용사의 서비스 자원봉사를 다른 참전용사들에게 잇는 이 독특한 모델은 브롱크스, 버펄로, 노스 컨트리에서 베테랑 식품 프로그램(Veteran Food Program)을 세 개 더 선보였습니다. 2020년 여름부터의 비슷한 노력으로 웨스턴 뉴욕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수만 개의 너리시 뉴욕(Nourish New York) 푸드 박스와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파머스 투 패밀리(Farmers To Families) 푸드 박스를 제공하였으며, 웨스턴 뉴욕 히어로즈(Western New York Heroes)와 피드모어 웨스턴 뉴욕(FeedMore WNY)과의 협력을 통해 매주 이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클린턴 및 프랭클린 카운티의 경제 기회 합동위원회(Joint Council for Economic Opportunity of Clinton and Franklin Counties)와 클린턴 카운티 참전용사 서비스 기관(Clinton County Veterans Service Agency)이 이 노력에 대한 협력을 이끌면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이 이니셔티브의 새로운 지점이 시작됩니다.

식량 불안은 참전용사, 군 요원 및 그 가족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미국 보훈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복무한 참전용사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음식이 불안정할 확률이 두 배라고 보고합니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150만 명의 참전용사의 가정은 음식물 섭취를 보충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혜택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발표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 Policy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59,000명의 참전용사가 자신과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혜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간 동안 뉴욕의 참전용사와 군인 가족들에게 신선한 식품을 제공해주신 헬로프레시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을 잃은 농부들을 팬데믹 동안 식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연결시키려는 너리시 뉴욕의 성공적인 노력에 기반합니다. 그 일환으로 너리시 뉴욕은 참전용사 지역사회에 건강한 뉴욕 음식을 공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Mike Hei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량 불안은 우리 나라에게 명예롭게 봉사한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뉴욕 전역의 많은 개인과 가족에게 슬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공중 보건 위기의 새로운 난관에 따라 건강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뉴욕 주민들에게 감사의 빛을 갚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너리시 뉴욕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 참전용사들이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보훈국의 **Joel Evans** 사무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참전용사도 자신이나 가족의 식량 부족을 겪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너무 많은 참전용사와 군인 가정이 이 고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이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 헬로프레시에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임무를 매주 해내는 기아 퇴치 캠페인,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 그리고 뉴욕시 보훈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보훈부 커미셔너 **James Hen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코로나19의 영향력을 보고 있으며 미국에 해를 끼칠 사람들을 퇴치하는 것에서 굶주림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위기에 처한 식량이 부족한 참전용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헬로프레시, 기아 퇴치 캠페인,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 뉴욕주 보훈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에 충실히 봉사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이 확대되어 감사하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뉴욕시의 참전용사 가정이 배고픈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프레시 미국의 최고경영자 **Uwe Vos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헬로프레시의 사명입니다. 지속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불안감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Cuomo** 주지사 및 뉴욕주와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참전용사와 군인 가정에 매주 마땅한 영양가 높은 식사를 공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흑인 재향군인 최고경영자 **Wendy McClinto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흑인 재향군인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봉사한 헌신적이고 충실하며 용감한 수많은 남성 및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식량 부족"을 초래하는 전염병을 끝내기 위해 뉴욕시 보훈부, 기아 퇴치 캠페인 및 헬로프레시와 힘을 계속 합쳐 나갈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